



27일 전남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린 제56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7일째 남자 일반부 단체전 준결승 MG새마을금고와 김천시청의 경기에서 한도성(뒤쪽)과 호를 맞춘 정연호(앞쪽) 이상 MG새마을금고가 강한 스매싱을 날리고 있다.

여수 | 박희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 @seven7sola

배드민턴 실업리그 추진 ‘순풍’

대기업들 신생팀 창단 문의 잇따라

신계륜 협회장 리그 추진 이후 관심 부쩍
실업리그 활성화 땀 유망주 발굴 등 유리
국제대회 한국배드민턴 경쟁력 제고 도움
용병제도 도입 등 흥미유도 방안 논의 중

국가대표팀이 세계 최정상을 꾸준히 지키고 있고, 생활 스포츠로도 가장 넓은 저변을 자랑하고 있는 배드민턴에 실업팀 창단 바람이 불고 있다. 실업리그 창설을 뛰어넘어 세미프로리그를 향한 발걸음의 시작이다.

국내 최대 규모·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56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남 여수 흥국체육관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한 곳도 배드민턴팀 창단에 관심을 보이며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신계륜 국

회의원)에 여러 사안을 문의하기도 했다.

한국배드민턴은 그동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고, 생활체육으로서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어 기업홍보와 사회공헌에 적합한 스포츠로 평가 받는다. 동호인 출신인 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2월 취임 직후부터 새로운 팀 창단과 실업리그 설립을 추진하면서 최근 들어 대기업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27일 열린 신생팀 MG새마을금고와 김천시청의 남자 일반부 단체전 준결승에는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대회가 데뷔전인 새마을금고가 8강전에서 국내 최강 삼성전기를 꺾고 준결승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키면서 창단을 타진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다.

실업리그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세미프로리그로까지 이어지면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에서 한국배드민턴의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배드민턴 유망주들의 발굴과 진로 확대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드민턴은 연중 국제대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대표선수들이 국내리그에 오롯이 전념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 실업팀 관계자는 “실업리그가 시작되면 방송 중계도 더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대표선수들이 특정 라운드에 모두 함께 참여하면 국제대회와 병행할 수 있다. 또 외국인선수 제도를 도입하면 대표선수들이 없을 때 흥미 유도와 전력 평준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실업배드민턴은 삼성전기, KGC인삼공사, 대교농높이, 요넥스, 새마을금고, 연풍 등이 이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김천시청, 당진시청 등도 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배드민턴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나올 경우, 지자체 팀을 후원하고 팀 명칭에 기업명을 넣어 상호협력하는 방식의 해법 등도 제시되고 있다.

여수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선일여고, 서울시협회장기 농구 4명으로 우승

국내 여고농구에서 4명이 편 팀이 5명으로 맞선 팀을 꺾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33회 서울시협회장기 남녀초·중·고 대회 마지막 날 여고부 결승에서 선일여고가 숙명여고를 77-74로 물리쳤다. 이번 대회 출전선수가 5명뿐이던 선일여고는 1쿼터에 김선희가 부상으로 빠지는 바람에 30분 넘게 4명만으로 싸웠다.

종별배드민턴, 새마을금고 돌풍 4강서 ‘스톱’

성한국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신생팀 MG 새마을금고가 27일 전남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린 제56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단체전 준결승에서 김천시청에 1-3으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전날 8강전에서 볼철 대회 우승팀인 강호 삼성전기를 꺾는 파란을 일으킨 새마을금고의 돌풍은 4강에서 멈췄다.

페더러·사라포바 패배…윙블던 이번 속출

시즌 3번째 메이저대회인 윙블던테니스대회에서 이번이 속출하고 있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세계랭킹 3위·스위스·사진)와 ‘러시안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3위·러시아)가 27일(한국시간) 영국 윙블던에서 열린 남자단식과 여자단식 2회전에서 각각 세르게이 스타코프스키(116위·우크라이나)와 미셸 라체르 데 브리토(131위·포르투갈)에게 패했다.



인천 실내무도대회 ‘8일간의 축제’ 팡파르

29일 개막…9개 종목 12개 이벤트 펼쳐져

2014인천아시아대회의 리허설 무대인 제4회 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가 29일 개막해 다음달 6일까지 8일간의 축제에 돌입한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김영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내년 9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제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국 중 북한과 동티모르를 제외한 43개 회원국에서 선수 1700명, 임원 700명을 비롯해 총 4000여 명이 참가한다. 당구, 볼링, 풋살, 25m 쇼트코스 수영, 탁구, 배드민턴, 바둑, 체스, 댄스스포츠, e-스포츠 등 총 9개 종목, 12개 이벤트가 펼쳐진다. 200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3회 대회 당시 3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따낸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선 모든 출전 종목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e-스포츠의 선전을 기대하



제4회 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27일 서울 공항동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에 모여 결의를 다졌다. 2014인천아시아대회의 리허설 격인 이번 대회는 29일 개막해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펼쳐진다.

김포공항 | 연합뉴스

고 있다. e-스포츠는 ‘스타크래프트2’, ‘FIFA13’, ‘스페셜포스’, ‘리그 오브 레전드’ 등 6개 세부종목에 걸쳐 개인전과 단체전을 별도로 진행한다. 이번 대회 기간 중에는 국립예술단과 인천시립예술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마련돼 있다. 또 2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KOVO, 우리카드 드림시스 인수 승인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서울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제9기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우리카드의 드림시스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KOVO와 우리카드는 4월5일 체결한 드림시스 구단의 양수·양도 계약대로 7월 말까지

매각 절차를 매듭짓기로 했다. 아울러 드림시스는 우리카드의 이름으로 7월1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친다. 우리카드는 7월20일부터 안산에서 열리는 KOVO컵 대회의 타이틀스폰서도 맡는다.

김종천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 @kimjongcheon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단 한번 ‘뉴 맨’!! 평생 단단한 놈!!



대표이사 서영숙

www.newm.kr

NAVER 뉴맨

네이버에 뉴맨을 검색하세요.



모바일에서는 newm.kr만 입력하세요.

▶ 남자는 원한다!

킨제이 보고서에서 20대는 하루1회, 30대 주4회, 40대 주2회, 50대 주1회, 60대는 월3회 정도의 성생활을 한다는 보고를 낸바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은 이보다 많은 횟수를 원한다. 특히 더 크고 강해져서 여성이 만족할 만큼의 시간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가지고 있다.

▶ 남자가 변한다!

‘뉴 맨’은 젊고 발기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더 크고 두꺼워져서 시간과 횟수의 연장을 원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 강직도가 약해지고 중간에 시들어 약물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운 중년이상의 남성에게 밀기 어려운 만큼 커지고 단단하고 강해져 횟수와 시간에서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준다.

▶ 최장! 최다의 기록! ‘뉴 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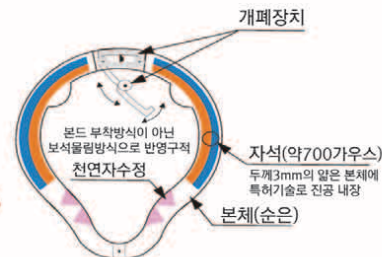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확대, 조루, 발기력 강화의 효능을 인정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유일하게 발명특허를 받은 ‘뉴 맨’은 2005년 각종신문매체에 광고 판매를 시작, 현재 8년간 8천여회의 신문 광고로 단일제품 사상 전무후무한 최장기간, 최대매체의 광고기록을 세웠다. 또한 일본과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20여개국 수출, 50만 고객 돌파의 쾌거도 이루었다. 50만 고객의 의미는 100만 고객일 것이다.

▶ 왜 점점 커지는가?

음경 동·정맥위치와 역할을 고려한 일체적 디자인, 천연자수정의 원적외선, 700가우스의 자기장효과로 음경해면체의 혈액유입량이 평소시보다 30%정도 증가, 더 커지고 굵어지고 단단해진다. 이는 헬스로 근육과 몸집을

뉴맨 단면도

※ 사이즈를 약 5~7mm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중설계 되었음.



키우고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써 새벽의 강한 발기와 관계시의 힘찬 마찰은 점점 더 크고 강한 남성을 만들어 준다.

지금까지 ‘뉴 맨’을 구입한 50만 가까운 남성대부분이 큰 사이즈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 왜 시간이 연장되는가?

음경몸통 성 신경을 감싸는 음경외피는 피스톤 운동시 팽팽해져서 귀두와 함께 여성기를 마찰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보편적인 외피는 팽팽하지 않아 밀리면서 몸통 성 신경을 자극하여 빠른 사정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뉴 맨’을 착용하면 커지고 굵어지는 효과로 팽팽해진 외피가 성신경의 자극을 줄여주어 시간을 연장시킨다.

▶ 8년간 지켜온 뉴맨의 약속!

‘15일 사용 후 불만족시 이유없는 반품, 전액환불!’ 이 약속은 제품의 자신감과 회사의 책임감에 의한 변함없는 약속이다.



국내유일
‘성기능강화용 링’
특허 획득



평상시 사이즈 단위 cm	뉴 맨 호수
6.5이하	주문제작
6.5	1호
6.75	2호
7	3호
7.5	4호
7.75	5호
8	6호
8.25	7호
8.5	8호
8.75	9호
9	10호
9.25	11호
9.5	12호
9.75	13호
10	14호
10.25	15호
10.5	16호
10.75	17호
11	18호
11.25	19호
11.5	20호
11.75	21호
12	22호
12.25	23호
12.5	24호
12.75	25호
13	26호
13.25	27호
13.5	28호
13.75	29호
14	30호
14.25	31호
14.5	32호
14.75	33호
15	34호
15.25	35호
15.5	36호
15.75	37호
16	38호
16이상	주문제작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일본지사 T. 03-6278-9461

뉴맨! 50만 고객돌파 전세계 20여개국 수출!

T.1577-5579, 010-7636-334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주)케이앤제이스포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6-1 한도빌딩 6층